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 - 1994년~2020년 빅카인즈(BIGkinds)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미영*
checo@naver.com

<目次>

- | | |
|--------------------|------------|
| 1. 머리말 | 3. 연구 결과 |
| 2. 연구 방법 | 3.1 관계도 분석 |
| 2.1 분석 도구 | 3.2 키워드 분석 |
| 2.2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 4. 맺음말 |

主題語: 오키나와(Okinawa), 한국(Korea), 미군기지(US military base), 오키나와 문제(Okinawa problem), 빅카인즈(BigKinds), 빅데이터(big data)

1. 머리말

한국과 오키나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왔다.¹⁾ 현재에는 양자 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체제 아래 미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²⁾ 이들 지역에서의 미군기지의 군사적 기능은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 주한 미군은 대북 억제 수단³⁾의 핵심적 요소로, 오키나와에서의 주일 미군은 공산 진영으로부터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 1) 류큐왕국은 14세기 고려와 국교를 개시한 이래 조선과도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오키나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시기마다 한반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류큐왕국은 1609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쓰마(薩摩)로 부터 침공을 받았으며, 1879년 류큐처분(琉球処分) 때에도 메이지 정부 내 정한론(征韓論)과 같은 논쟁이 격화되자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일본으로의 병합이 서둘러 진행됐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가 강화되기도 했다.
- 2) 여기서 오키나와를 일본과 구분하여 명시한 이유는 오키나와가 일본 내 미군기지 전용시설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기지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미군기지 하면 떠오르는 ‘평택’, ‘의정부’와 같은 몇몇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내 오키나와 인식을 검토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세분화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밝힌다.
- 3) 은창일(2000)「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전쟁연구회(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p.136

터 동아시아 지역을 방위하는 전진 기지로 각각 자리매김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전적 기원과 정체성’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1990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지역 내 미군 주둔의 명분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의 기능이 미·일 안보체제에 의해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비 부담액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 2,000억 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⁵⁾ 또한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는 총 54,262명으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토인 하와이(41,803명)보다도 그 수가 많다.⁶⁾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 『2020년판 방위백서(令和2年版防衛白書)』에서 다음과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⁷⁾ 우선 오키나와가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등과 비교하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라는 잠재적인 분쟁 지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동시에 이들 지역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의 입장에서도 오키나와가 대륙과 태평양의 접속 지점에 위치하여 이들 국가의 안전 보장 상 지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오키나와의 지리적 특징을 바탕으로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가 미·일동맹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잠재적인 분쟁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기지의 고착화와 관련된 오키나와 문제(沖繩問題)⁸⁾는 결코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오키나와는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4) 박봉규(2018) 「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3), 한국동북아학회, p.202 박봉규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북·미 관계 개선 혹은 남북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주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 출처 : 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在日米軍駐留経費負担の推移”, https://www.mod.go.jp/j/approach/zaibeigun/us_keihi/suii_table_r02.html(검색일: 2021.2.2.)

6) 출처 : 오키나와현청 홈페이지, “沖繩の米軍及び自衛隊基地(統計資料集)令和2年3月”, <https://www.pref.okinawa.lg.jp/site/chijiko/kichitai/syogai/toukeishiryou2.html>(검색일: 2021.2.2.)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수는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그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일미군 병력에서 오키나와 미군 병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전후를 차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7) 출처 : 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令和2年版防衛白書』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0/html/n32403000.html>(검색일: 2021.02.02.) 오키나와 재일 미군 주둔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8) ‘오키나와 문제’의 일본어 표기법은 ‘沖繩問題’로 ‘오키나와’와 ‘문제’가 더해져 단일 명사처럼 쓰이는

체제의 핵심 지역이자 일본 안보의 최정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 문제의 향방은 앞으로 한국의 대미 정책 및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미군기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한국과 오키나와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미군의 소녀 성폭행 사건(이하, 소녀폭행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오키나와현(沖縄県) 지사였던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가 미군기지의 토지 강제 사용 절차에 대한 대리서명⁹⁾을 거부하면서 오키나와 문제는 일본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 이전까지 한국에서의 오키나와에 대한 이미지는 제주도와 같은 ‘관광의 섬’이 다였다면, 1995년을 기점으로 ‘기지의 섬’의 이미지가 추가됐다. 일본 내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후 20년 이상의 공백¹⁰⁾을 깨고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이후, 다카하시 준코(高橋順子)의 지적처럼 1972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맥락에서 풍화(風化)됐다.¹¹⁾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오키나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도출¹²⁾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말로, 주로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 및 그와 관련한 문제를 가리킨다. 그 밖에도 이 말은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와 관련한 여성, 환경, 토지, 경제 관련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군기지 문제로서 오키나와 문제를 정의한다.

- 9) 미군정 아래 군용지(軍用地)는 류큐 정부가 각각의 군용 지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미군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확보됐다. 이에 미군기지에 대한 재정부담은 최종적으로 미국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 복귀 후 미·일안보조약과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군용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면서 3만 명에 가까운 군용 지주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의 군용지가 사실상 미군에 의해 강제 접수된 것으로 차후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군용 지주가 나올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복귀에 앞서 1971년 12월 ‘오키나와에 있어서의 공용지 등의 잠정사용에 관한 법률(沖縄における公用地等の暫定使用に関する法律)’을 제정했다.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으로 당시 많은 오키나와인들의 반발을 샀지만 그대로 강행됐다. 이후 이 법의 기한이 종료되자 일본 정부는 ‘미군용지특조법(駐留軍用地特措法)’을 오키나와에만 예외적으로 발동했다. 이 법에는 지주가 미군용지 사용을 거부할 경우 대상 토지가 소재한 시정촌장에게 서명날인의 대행(대리서명)을 요구하고 시정촌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지사에 대행을 요구한다는 일명 ‘대리서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新崎盛暉(2005)『沖縄現代史』岩波書店, pp.75-116
- 10) 마시코 히데노리(ましこ ひで のり)의 지적처럼 애초에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논의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반전(反戦)이나 시정권(施政權) 반환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일본복귀와 더불어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본토의 관심은 이미 한차례 풍화된 바 있다. ましこひで のり(1997)『イテ オロキ どて の日本』三元社
- 11) 高橋順子(2003)『「復帰」前後における「沖縄問題」言説の変容過程—教育研究全国集会の事例から』『年報社会學論集』2003卷16号, 関東社会学会, pp.26-38 다카하시는 복귀 직후의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본토의 관심이 ‘풍화’됨으로써, 이것이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한 폭력의 재생산의 은폐에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풍화’는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2)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에서 ‘오키나와’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741건의 국내 학술 논문이 출판되었는데, 1995년 이전까지 논문

오키나와와 한국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크게 오키나와와 한국의 역사적 혹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는 것¹³⁾과 외교정책을 분석한 것¹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김종성과 홍종필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고려 시대부터 비롯된 한국과 오키나와의 밀접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신주백은 오키나와 전투에 많은 조선인이 일본군의 노동자이자 위안부로 동원된 기억 및 유신 정부의 오키나와 내 한국인 위령탑 설립 과정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서 오키나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추적했다. 후자의 경우 나리타 치히로(成田千尋)와 윤덕민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나리타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오키나와의 귀속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관여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냉전 구조 속에서 자국의 안전과 오키나와 기지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윤덕민은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일본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1960년대 중후반 시기에 걸쳐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가 한국의 안보를 둘러싼 한국·미국·일본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와 관련한 학술적 관심이 증대하는 것에 비해 미군기지 주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한국과 오키나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은 오키나와와 같이 미군 주둔 등을 이유로 긴장 상태¹⁵⁾에 있는 지역으로 오키나와 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일본 본토와 달리 좀 더 객관적이며 전략적인 측면에서 오키나와를 대면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동아시아 내에서

발행 건수가 4년간 평균 0.7편에 그친 것에 반하여, 1995년을 기점으로 1997년에는 6건, 1998년에는 10건, 1999년에는 5건, 2000년에는 1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47.2건의 관련 논문이 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분야는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료 출처 : <http://www.riss.kr>. (검색일: 2021. 8.14)

- 13) 홍진환(2015)「제주, 오키나와, 밀양 그리고 후쿠시마」『황해문화』86, 새얼문화재단, 김종성(2011)「조선과 오키나와, 순망치한(肅亡齒寒) 관계」『민족21』2011.12, 남호엽(2011)「[학술 에세이] 오키나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사회과교육」『사회과교육』50(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신주백(2007)「한국근현대사와 오키나와-상흔과 기억의 연속과 단절」『한국민족운동사연구』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홍종필(1999)「한국과 ‘오키나와(沖繩)’와의 관계에 대하여」『역사와실학』10·11, 역사실학회
- 14) 나리타 치히로(2019)「오키나와 귀속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 정부의 동향-1940~50년대를 중심으로」『인문논총』제76권 제2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윤덕민(1992)「美日 오키나와 返還協商과 韓國外交-오키나와返還에서 보는 韓國의 安保를 둘러싼 韓美日의 政策研究」『국제정치논총』31, 한국국제정치학회
- 15) 오키나와는 주민의 실생활에 미군기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긴장 상태에 있다면, 한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현재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미군기지가 분포되어 있는 평택이나 의정부 등에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한정되지 않고 전 국토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미국이 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THAAD)의 국내 도입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한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등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의 평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미군기지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아래 있으며, 한반도는 북한의 핵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므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쟁점에 따른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 군사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 이설 문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고 아래, 1차적으로 한국 내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 정도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오키나와 문제가 가진 함의를 추적하기에 앞서 국내의 오키나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망하기 위해, 국내 언론에서 오키나와, 특히 ‘오키나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가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로 증명되어왔다.¹⁶⁾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문 자료가 당대의 화제와 사건을 반영하고 사회의 다양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¹⁷⁾는 점에 착안하여, 신문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Big Data)¹⁸⁾ 분석을 통하여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도구 및 분석 방법의 제시와 함께 주요 키워드인 ‘오키나와’와 관련한 연관 기사 분포도를 대략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연도별 기사 추이를 살펴보고 전년도에 비해 기사의 수가 눈에 띄게 변화한 해의 기사를 추적·관찰하여 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것이었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1장에서 간략히 언급한 오키나와에 대한 시기별 일본 본토의 인식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다룬 다음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에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다루며 본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6) 이병중(2012)「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홍보학연구』제16권 제3호, 한국PR학회, pp.62-97, 정호윤·김호(2021)「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포르투갈 관련 국내 언론 보도 텍스트 연구: 2017-2020년 기사를 중심으로」『EU學研究』제26권 제1호, 한국EU학회, pp.125-148, 박윤주(2013)「미디어 모노컬처와 오리엔탈리즘: 한국 언론의 라틴아메리카 보도 행태 연구」『중남미연구』제32권 제2호, 중남미연구소, pp.139-162, 정호윤(2021)「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포털 사이트의 라틴아메리카 관련 뉴스 보도 행태 연구: 브라질과 멕시코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포르투갈-브라질 연구』제18권 제1호,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pp.125-151

17) 김경오·권충훈(2020)「코로나19 이전(2019)과 이후(2020)에 항공사와 직원 관련 언론사 뉴스 기사 비교 분석」『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25(7), 한국컴퓨터정보학회, p.168, 나경식·이지수(2018)「신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국내 정보화의 경향과 도서관의 역할」『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Vol.18 No.9, 한국콘텐츠학회, p.15 부연하면 나경식 등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신문 빅데이터가 관련 이슈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관계망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맥락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뉴스콘텐츠는 상당 기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로서 축적되어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빅데이터 중 하나이다, 김성태·박창신·최홍규(2014)『빅데이터로서 뉴스콘텐츠 활용방안 연구』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p.3

2. 연구 방법

2.1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에 대한 인식 조사에 앞서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문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신문 데이터는 가장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원이자, 지면 외에도 인터넷 혹은 SNS 등을 통한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큰 역할을 미친다.¹⁹⁾ 그러므로 관련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은 사회 구성원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²⁰⁾ 이를 읽는 독자들이 특정한 태도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도하는 기능²¹⁾과 더불어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공통의 생각을 형성하여 의식의 획일화를 촉발하는 평균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²²⁾

이에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검색 및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 매체의 약 6천 8백만 건의 뉴스 콘텐츠를 빅데이터화 하고 있다.²³⁾ 빅카인즈 서비스는 정치·교육·범죄·경제 등과 관련한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를 핵심 검색어로 하여 이와 함께 추출된 ‘키워드 트렌드’, ‘관계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 오키나와가 어떻게 기사화되고 대상화되었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키워드 경향을 통해 관련 뉴스 건수를 기간별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오키나와’와 관련한 연관어로 어떠한 것이 언급되었는지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연관어가 부각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하여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 박수정·김영태(2018)「자유학기제 관련 신문 기사 분석 : 정책 입장과 주요어를 중심으로」『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제18권 제1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704

20) 최중홍·이호규(2020)「정치적 갈등 이슈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및 국면 분석: 2019년 ‘조국 사태’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27(2), 사회과학연구원, p.113

21) 한용진·최정희(2011)「신문기사에 나타난 자녀교육 인식 변천-1920년대~199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한국교육학연구』제17권 제3호, 안암교육학회, p.178

22) 이재호(2000)『대중매체와 사회』양지, 한용진·최정희(2011), p.113에서 재인용

23)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 (검색일:202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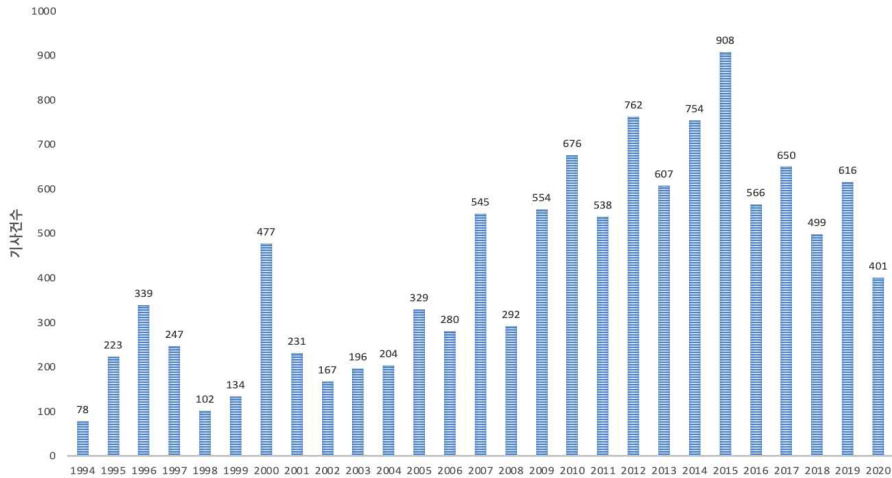
2.2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종합일간지 중 구독자 수가 상위인 총 6개의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중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제외한 네 개의 신문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²⁴⁾ 데이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외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이전 해인 1994년부터 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²⁵⁾인 2020년 12월까지 발간된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에 주요 기사 검색 기간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1995년을 기준으로 기사량의 추이를 검토하기 위해 199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날씨 및 여행 정보 등과 관련한 기사도 모두 포함했다.

빅인즈를 통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총 4개의 신문에서 최종 수집된 기사의 양은 총 11,375건이며, 연도별 기사량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1994년에 비해 1995년에,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관련 기사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7, 2009년에도 다른 해보다 전년도에 비해 관련 기사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사 추이 및 보도 경향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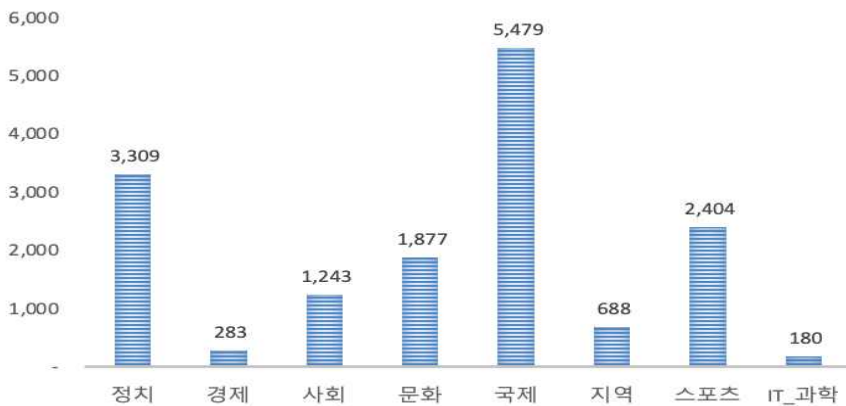
24) 빅인즈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기사는 매체에 따라 수집 기간이 상이한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각각 수집 기간이 2018년, 2017년 1월부터로,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25) 2021년 2월 17일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근거로 우리 돈 약 2조에 가까운 분담금을 부담할 것을 미국과 합의함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사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에 대한 과도한 분담금 부담에 대해 비판하며, 최근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미 군용기의 저공비행 훈련이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어 국내적 반발이 큼을 지적하며 미군 주둔의 선행요건으로 지역 주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아사히신문(朝日新聞)홈페이지 2021년 2월 22일자 사설, “(社説)米軍駐留経費地域の安定を見据えて”,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808007.htm?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검색일: 2021.2.22.) 또한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비판은 최근의 일이라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川瀬光義(2011)『米軍基地維持費支出膨張の構造』『立命館経済学』第59巻第6号, 立命館大学経済学会, 中内康夫(2008)『包括的な見直し求められる在日米軍駐留経費問題-在日米軍駐留経費負担特別協定』『立法と調査』No.278, 参議院



<그림 1> ‘오키나와’ 관련 기사의 연간 추이(1994-2020)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관련 기사의 세부 항목을 빅카인즈의 「통합분류」²⁶⁾ 항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오키나와’ 관련 기사 중 5,479건이 국제 부문 기사였으며, 그 뒤를 정치(3,309), 스포츠(2,404), 문화(1,877), 사회(1,243) 부문 기사가 차지했다.



<그림 2> ‘오키나와’ 관련 기사의 주요 분야별 기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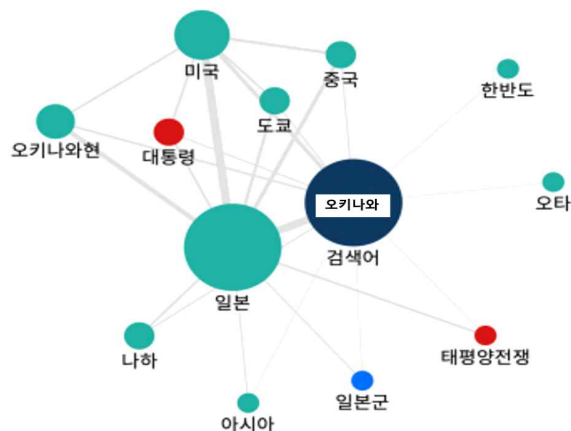
26) 빅카인즈의 「통합분류」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 8개 분야로 분류되며, 각각의 기사는 최대 세 가지 분류를 가질 수 있어, 기간 내 검색된 전체 기사량과의 총합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오키나와 문제, 요컨대 미군기지와 관련한 기사는 주로 정치 및 국제 부문으로 분류되며, 관련 보도가 대부분 양자에 모두 포함되어 카운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로 묶어 분석한다.

3. 연구 결과

3.1 관계도 분석

우선 전체 데이터에서 ‘오키나와’와 관련한 상위 10개 키워드를 종합하면 다음의 <그림3>과 같다. 이것은 검색 결과 중 정확도가 높은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 데이터에서 추출된 ‘오키나와’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한 것으로, 각각의 개체명은 검색된 동일한 기사에서 추출된 다른 개체명과 연결된다. 관련 기사에서 주요 검색어인 ‘오키나와’와 연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일본’이며, 그 뒤를 ‘미국’, ‘오키나와현’, ‘중국 등이 이었다. 이처럼 추출된 100건의 기사에서 중복 카운트 된 6건을 제외한 94건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일본, 중국, 아시아와 연계되는 <국제>에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정치>(24건), <문화>(11건), <스포츠>(8건) 관련 기사가 차지했다.



<그림 3> ‘오키나와’와 관련한 주요 뉴스의 시각화

그리고 <그림 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오키나와’와 ‘한반도(한국)’를 함께 언급한 기사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빅카인즈 「관계도 분석」에서는 ‘오키나와’와 ‘한반도’를 함께 언급한 기사 중 상위 9개 기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중복된 1건을 제외한 기사를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오키나와’와 관련한 기사 검색 결과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중
‘오키나와 문제’ 관련 기사(검색기간, 1994.1.1.~2020.12.31.)

	기사제재일	신문사	기자 (저자)명	기사제목
1	1996.07.24	한겨레	박종문	한반도 긴장완화 전제/일,오키나와 미군 삭감 요청
2	1997.06.11	중앙일보	노재현	일본 오키나와 제2항공 무역.정보의 새중심
3	2000.07.20	중앙일보	배명복	[분수대] 오키나와의 미군
4	2012.03.19	경향신문	서의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자위대와 공동사용 검토
5	2012.09.16	경향신문	디지털 뉴스팀	초대형 태풍 ‘산바’ 오키나와 통과 한반도쪽 북상
6	2014.10.07	경향신문	이명원	[오키나와로부터 온 편지]오키나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7	2017.05.15	경향신문	김진우	[깊이읽기]본토 복귀 45년 맞은 오키나와... ‘기지의 섬’ 고통은 여전
8	2019.11.10	경향신문	김시덕	[김시덕의 명저로 읽는 일본의 쟁점](4)밀무역으로 미군 쇄국통치 무력화...오키나와 ‘지하경제’ 주무른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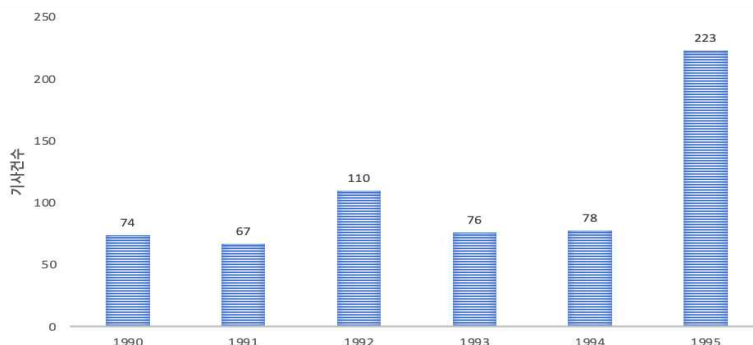
그중 오키나와와 한반도가 함께 언급된 기사는 <표 1>에서 강조한 것으로, 이들 기사에서 오키나와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후방 기지이자 군사적 거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떠받치는 버팀목’, ‘미·일 양국의 전략적 요충지’, ‘미국인의 피로 쟁취한 섬’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컨대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내에서 있을지도 모를 군사적 충돌을 대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전술한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의 2017년 5월 15일자 기사인 “[깊이 읽기]본토 복귀 45년 맞은 오키나와... ‘기지의 섬’ 고통은 여전”에서는, 2017년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45주년을 맞이하여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에 대한 인식 격차를 다루고 있는데, 오키나와 문제를 국내에 소개하고 소개하며 한반도를 남중국해, 대만해협과 함께 미·일 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서술하고 있다.

3.2 키워드 분석

빅데이터에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은 선택한 기간에 따라 검색한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량의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오키나와’로 검색했을 시 추출된 기사의 연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특히 1994년 비해 1995년,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관련 기사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1995년은 소녀폭행사건이 있던 해로 일본 국내외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2000년은 ‘류큐왕국(琉球王国)의 구스쿠 및 관련 유산군’이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등록된 해이자, 특히 G8 정상회담이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시기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두 시기를 포함하여 기사의 증감 폭이 컸던 2007년과 2009년, 그리고 검색 기간 중 수집 기사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을 중심으로 오키나와와 관련한 기사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오키나와에 대한 한국 내 기사 보도 경향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3.2.1 1995년 : 기지의 섬, 오키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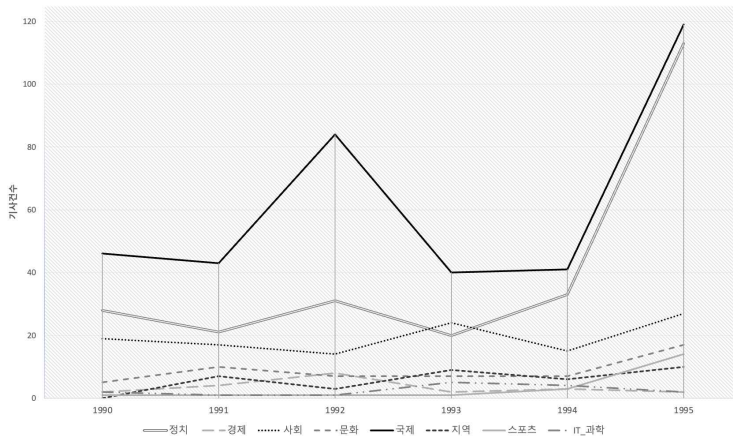
국내에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검색어를 ‘오키나와’로 했을 때 검색된 모든 기사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2년을 제외하고 평균 70건을 유지하다가 1995년에 관련 기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의 경우는 ‘오키나와’가 언급된 기사가 이전에 비해 증가한 바 있으나, 이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개 증언한 이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시작하면서이다. 당시 기사의 주요 요지는 오키나와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내용으로, 오키나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림 4> ‘오키나와’ 관련 기사의 연간 추이(1990~1995)

1995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의한 소녀폭행사건으로 일본 국내외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진 시기이다. 오키나와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반(反)기지 감정이 높아진 시기로, 일본 복귀 이후 최대 규모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일례로 같은 해 10월, 기노완(宜野灣)시에서 개최된 「미군에 의한 소녀폭행 사건을 규탄하고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오키나와현민 총궐기 대회」에 주최 추산 8만 5천명의 주민이 참가했다. 이와 더불어 ‘오키나와 문제’라는 말이 일본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관련 서적의 간행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²⁷⁾ 한국에서도 1995년을 기점으로 오키나와와 관련한 연구가 증가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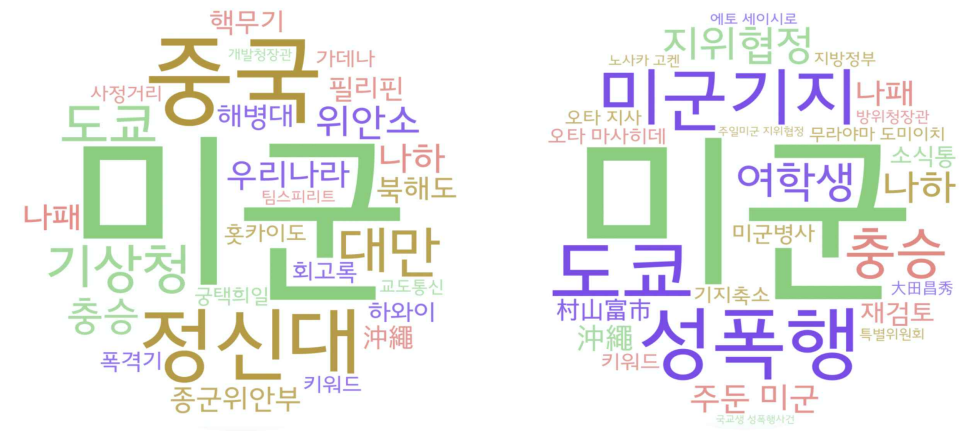
<그림 5>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오키나와와 관련한 기사의 추이를 「통합분류」 결과를 통해 재구성한 것으로, 전년에 비해 1995년에 기사량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국제> 및 <정치> 부문의 뉴스 증가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년 <국제> 및 <정치> 관련 뉴스는 같은 해 9월 소녀폭행사건이 발생한 이래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일 양국 간의 미군기지 축소와 관련한 협의가 오가기 시작한 10월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통합분류」에 따른 오키나와 관련 기사 추이(1990~1995)

27) 高橋順子(2003) 앞의 논문, p.26, p.37

28)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오키나와와 관련한 보도가 1995년과 1996년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다케우치 마스미(竹内真澄)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뉴욕타임즈(NYT)』에서 보도된 기사에서 ‘오키나와’를 용어 검색한 결과, 관련 기사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30건 보도되던 것이 1995년에는 113건, 1996년에는 95건으로 증가했다가, 1997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竹内真澄(2001)「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沖縄>をどう報道したか?(1)-1995-2000年」『桃山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26(3), 桃山学院大学総合研究所, p.143



<그림 6> ‘오키나와’ 관련 기사의 워드 클라우드 1991~1994(좌)와 1995(우)

1995년과 그 이전의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을 좀 더 한눈에 보기 쉽게, 검색 결과 중 분석 뉴스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수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시각화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95년을 전후하여 오키나와에 대한 보도 경향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두 시기 모두 오키나와와 관련한 미군 소식이 가장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1995년 이전에는 ‘기상청’, ‘중국’, ‘정신대’, ‘중군위안부’와 같은 단어가 비교적 눈에 띄는 반면, 이후에는 ‘미군기지’, ‘성폭행’, ‘오타 마사히데’,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등 오키나와 문제와 실질적으로 관련한 단어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당시 일본 수상으로, 오타 현지사가 ‘대리서명 거부’를 표명하면서 소녀폭행사건으로 관심이 증대된 오키나와 문제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대결 구도로 나타났다.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펼쳐진 무라야마와 오타 간 대화에서, 오타는 대리서명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지위 협정의 개정 및 기지의 정리·축소를 요청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라야마는 집무 집행명령으로 오타를 제소하여, 그 대립 구도는 1996년 1월,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정권이 집권한 후에도 계속됐으며 1996년 8월 최고재판소 판결, 9월 주민투표 등으로 이어졌다. 1995년에 이어 1996년에도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보도가 많은 이유는 이러한 연유도 한몫했다.

1996년은 1995년에 이어 무엇보다도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국내 보도가 이전에 비해 증가한 시기이다. 일본에서도 1996년 4월, 도쿄(東京)에서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정도로 일본 본토에서도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림7> ‘오키나와’ 관련 기사의 워드 클라우드(1996)

<그림 7>은 1996년의 ‘오키나와’ 관련 뉴스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그 빈도수에 따라 시각화한 것으로, ‘과학자’²⁹⁾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모두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키나와’는 1996년 3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양자 사이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 주변에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단순 언급되거나, 4월에는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의 이전 지역으로 한국이 괌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3.2.2 2000년 : G8 정상회담 개최지, 오키나와

오키나와 문제는 1995년 극적인 사건을 맞이하며 1972년 일본 복귀를 전후하여 일본 정치 문제로 부상하는 듯했다. 당시 오키나와현 지사였던 오토가 미군기지의 토지 강제사용 절차에 대한 대리 서명을 거부하며 일본 최초로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 간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기지를 반대하며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펼쳐 미일 양국의 협의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오키나와의 입장은 여전히 정부의 결정에서 배제

29) ‘과학자’라는 키워드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회 ‘국제 발명,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에 참가한 오키나와 출신의 북한 과학자가 한국에 망명신청을 하면서 4개의 신문 모두에서 관련 보도를 통해 언급됐다. 「북한 과학자 망명/국제대회 참석 뒤 귀국길」『한겨레』1996.5.30. 「북한과학자 1명 한국 망명-日통신보도 韓日선 부인」, 『중앙일보』1996.5.30. 「북 과학자 망명/북경 한국 대사관에 요청/지난 7일」『한국일보』1996.5.30. 「북 과학자 북경서 망명/이달초/일 대사관 통해」『경향신문』1996.5.30., 출처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 /search.do> (검색일:2021. 6.15)

됐다.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1996년 1월 미일 양국의 협의로 설치한 ‘오키나와에서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 위원회(SACO)’가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포함한 11개 시설의 반환을 결정했으나, 오키나와 주민의 바람과 달리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내 이전이 확정되고, 오키나와 문제는 일본 본토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

그 후 1999년 4월, 당시 수상이던 오부치(小淵惠三)가 “오키나와의 오랜 역사적 아픔과 주민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라는 정치적 수사와 더불어 오키나와를 G8정상회담의 개최지로 결정하면서 ‘오키나와 문제’ 역시 일본 국내외적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정상회담이 개최된 해인 2000년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됐는데, 이에 앞서 우선 이전 상황에 대해 먼저 서술한다.

1999년 ‘오키나와’를 언급한 총 134건의 기사 중 <국제> 및 <정치> 부문으로 「통합분류」된 것은 총 70건으로, 그중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를 단순 언급하거나 일정 부분 다룬 기사는 <표 2>와 같다. 오키나와 문제가 일본 정치 문제로 부상한 1995년의 <국제> 및 <정치> 부문으로 「통합분류」된 기사 166건 중 대부분의 기사가 그와 연관된 것과 비교해, 1999년에는 관련 기사량이 확연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오키나와’를 언급한 보도 중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를 언급한 기사(1999)

	기사제재일	신문사	기자 (저자)명	기사제목
1	1999.01.05	한겨레	한승동	일, 초대형 ‘부양식 해상공항’ 실험
2	1999.01.09	중앙일보	이서환	[시론]동북아 99년 화두는 안보
3	1999.02.24	한국일보	황영식	[아사히신문 보도] “미 94년 북핵 위기 때 일에 병력 요청”
4	1999.02.24	한겨레		미, 한반도유사시 일 주요공항-항만 지원요구
5	1999.03.11	한겨레	한승동	‘한반도 냉전 새불씨’ 일사천리 통과 기세
6	1999.04.29	한겨레		주한미군, AC-130등 최신헌기 증강배치
7	1999.05.26	한겨레	한승동	요미우리신문 한반도사태 시물레이션
8	1999.05.28	한겨레	임석규	‘여그는 시방도 전쟁중이야’
9	1999.05.31	한국일보		[일본] 빈국 부채탕감 고민
10	1999.06.07	한겨레	벨로	[해외논단]벨로/보호령은 왜 유지되나
11	1999.06.16	한국일보	윤승용	[남북교전] “금강산 관광객 이상없냐”
12	1999.06.16	한겨레		‘서해 교전’ 북 함정1척 격침

13	1999.06.16	한국일보		[남북교전] 한·미, 미군전력 한반도 주변 증강배치
14	1999.06.16	한국일보	정덕상	[남북교전] 미증원전력 무슨 장비 오나
15	1999.06.17	경향신문	이중근	<서해사태>美軍 전력 증강배치 - 항모 콘스틸레이션 ‘발진준비’
16	1999.06.17	한국일보	박천호	[서해사태] 휴전 후 첫 전투 한미공조 ‘이상무’
17	1999.06.17	한겨레		숨죽인 서해. 경계태세 강화
18	1999.06.17	한겨레		항모, 전투기 신속 배치할 듯
19	1999.06.18	경향신문	김종훈	<西海사태>對北 정보수집 능력 어느 정도 되나
20	1999.06.18	한국일보		[교전이후] 서해 ‘육해공 입체감시’
21	1999.06.25	한겨레	김효순	김효순 칼럼/한반도의 화두는 없는가
22	1999.06.28	한겨레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 내년 7월까지 해결돼야’
23	1999.07.13	한겨레		‘북 미사일 10년내 미국 사정권’
24	1999.07.30	경향신문	김종훈	<北 미사일 대응>‘군사적 대응’ 어떻게 하나
25	1999.10.22	경향신문		냉전기간 한국 등 해외 27곳에 美 핵무기 12,000개 비밀배치
26	1999.11.06	중앙일보	김현기	[해외 석학 칼럼] 다나카 나오키
27	1999.11.24	중앙일보	오영환	오키나와 미군비행장 나고시 이전
28	1999.11.24	한겨레		후텐마 미공군기지 / 나고로 이전키로
29	1999.12.08	한겨레	허호준	흐름/ 한·일·대만 민중연대 ‘인권 지키기’
30	1999.12.29	경향신문		美공군도 양민학살 만행, 한국전쟁 초기 피난민, 학교 등 무차별공습

<표 2>를 바탕으로 1999년의 오키나와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키나와 문제 혹은 그것과 한반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다룬 기사는 <표 2>에서 음영 처리한 바와 같이 총 10개로 집계됐다. 유의미한 기사량이 적어, 이를 대상으로 당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국내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국내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한겨레』와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의 보도 경향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총 10개의 기사 중 8개가 『한겨레』, 2개가 『중앙일보』의 보도로,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비교적 오키나와와 관련한 소식을 지속해서 전달하며, 같은 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된 데에 문제점을 제기하거나³⁰⁾, 오키나와와 국내 미군기지 문제를 함께 언급³¹⁾하는 등 오키나

30) 「‘한반도 냉전 새불씨’ 일사천리 통과 기세」 『한겨레』 1999.3.11. 출처 : 빅카인즈 홈페이지

와 문제를 오키나와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후자는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와 오키나와는 물론 미국 영토 일부까지 사정권에 포함”했다는 말과 함께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³²⁾하며, 같은 시기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표명한 일본 본토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논조를 보인다. 더불어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에 서해교전, 북한 미사일 개발 등과 같은 남북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한반도와 연계하여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의 역할에 관심이 증대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6월 15일, 일명 ‘연평해전’이라 불리는 서해교전이 발생한 후 보도된 기사에서 공통으로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북한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1999년에 오키나와를 단순 언급한 보도 중 다수가 이듬해 일본 정부 주도로 오키나와에서 개최 예정인 G8 정상회담과 관련한 것으로, 2000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9년과 동일한 조건에서 ‘오키나와’를 언급한 총 477건의 기사 중 ‘국제’ 및 ‘정치’ 부문으로 「통합분류」 되는 기사는 총 407건으로, 그중에서 단순히 G8 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오키나와를 언급한 기사는 220건,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단순 언급한 기사는 26건, 오키나와 문제를 중요도 있게 다룬 기사는 97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97건 중 53건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7월에 집중됐다.

이러한 기사량의 변화는 그만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5년을 기점으로 미일 양국이 오키나와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으나 2000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 시기 미일 양국의 입장이 변화하는 듯하였으나, 5년이 흐른 시점인 2000년에도 일본 전체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미군 전용 시설의 75% 이상이 집중됨으로써 그에 따른 제반 문제도 여전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 7월 3일, 오키나와 주둔 미국 해병대원의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오키나와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주일 미군에 의한 범죄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문제사’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국내 보도에서도 “미군 철수만이 궁극적인 재발 방지책³³⁾”이라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 더불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이목이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미일 양국의 대응 방법도 큰 화제가 됐다. 사건 직후 미군 당국은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1. 6.2)

31) 「여그는 시방도 전쟁중이야」 『한겨레』 1999.5.28. 출처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1. 6.2)

32) 「[시론]동북아 99년 화두는 안보」 『중앙일보』 1999.1.9. 출처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1. 6.2)

33) 「오키나와 美軍 잇단 범죄, G8회담 찬물」 『한국일보』 2000.7.12. 출처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1. 6.2)

이례적으로 미군 총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의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고 기지 내 주류 판매를 중지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1995년 소년폭행사건과 같이 이후에도 오키나와에서는 미 병사들의 불상사가 잇따랐으나 현지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죄를 표명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³⁴⁾ 당시 한국 내 반미 정서가 고조된 상태에서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동시기 한국에서는 과거 미군에 의한 주민학살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반미 감정이 형성된 가운데, 국내 언론이 녹색연합에서 폭로한 용산 미군기지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 문제와 더불어 매항리 폭격 훈련 등을 오키나와 문제와 함께 다루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 역할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당시 미군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키나와를 언급하는 보도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한겨레』는 “전환기에 이른 한·미 관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군의 밤낮없이 이루어지는 매항리 폭격 훈련과 관련하여 “왜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까지 한반도에서 폭격 연습을 하는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반문하여 현재의 미국 중심의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³⁵⁾ 비슷한 시기 『한국일보』도 “매항리와 SOFA”라는 칼럼을 통해 1966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일명 한·미 행정협정(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상황을 짧게 언급하며, 한국 내 반미기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미국은 한국과의 한·미 행정협정 개정 협상에서, 적어도 일본과의 협정 수준만큼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⁶⁾

하지만 오키나와를 언급한 기사량은 7월 21일부터 3일간 G8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위와 같은 논조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0월 26일과 27일에, 『한국일보』를 제외한 3개의 신문은 1999년 4월, 한·미 군당국 사이에 체결된 ‘전시 비축 탄약합의 각서’ 내용이 한국에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오키나와와 미국 본토의 미군 탄약까지도 반입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뒤늦게 재협상에 나섰다는 사실을 보도³⁷⁾했다. 1998년 북한이 첫 장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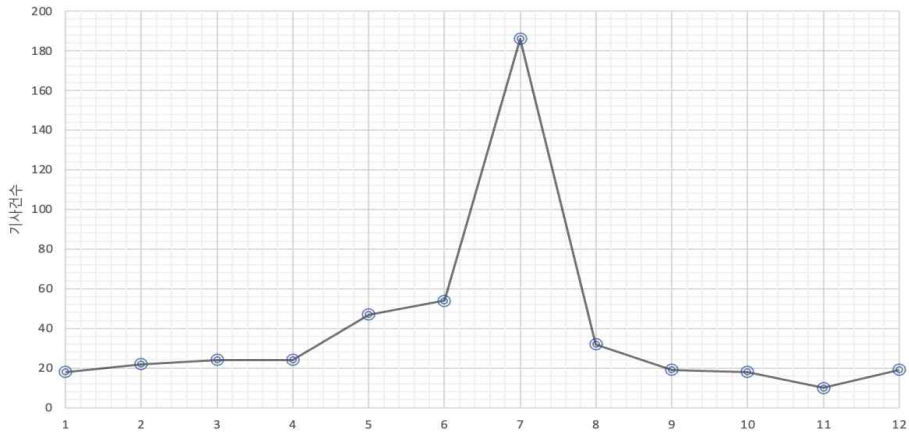
34) 「눈총 따가운 해외미군」『중앙일보』2000.7. 8. 출처 :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s://news.joins.com/article/3941814>(검색일: 2021. 6.2)

35) 「[사설]전환기에 이른 한·미 관계」『한겨레』2000.7.18, 출처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1. 6.2)

36) 「[정달영칼럼]매항리와 SOFA」『한국일보』2000.7.14, 출처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1. 6.2)

37) “‘美본토 고성능폭탄도 국내반입 재처리 가능’-韓美 ‘불평등 각서’ 파문”, 『경향신문』2000.10.26., “주한미군과 불평등 계약…탄약 처리 건설 관련”, 『중앙일보』2000.10.26, “[사설]불평등 조약, 해도 너무한다”, 『한겨레』2000.10.27.

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의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이후 이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국내에서는 오키나와와 한국의 미군기지를 동반자 관계이자 비교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림 8> 검색어 ‘오키나와’를 포함한 월간 기사 건수(200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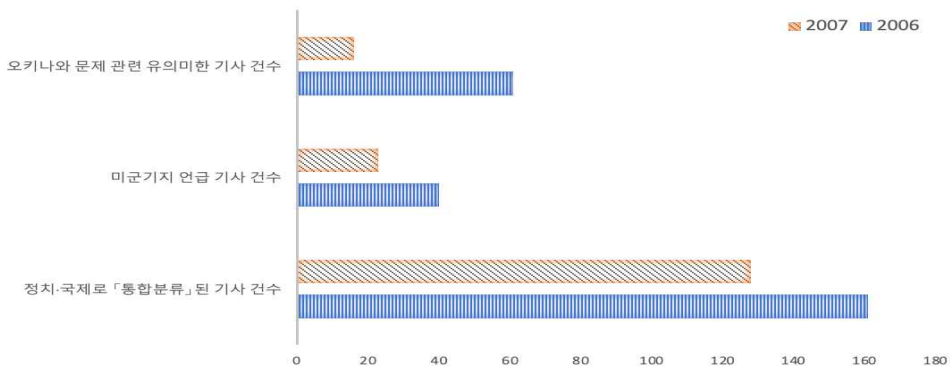
3.2.3 2007년 : 야구 전지 훈련장, 오키나와

2000년 7월, G8 정상회담이 오키나와에서 열린 이후 국내 보도에서 오키나와를 언급하는 횟수는 앞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07년 관련 기사량이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야구 대표팀이 전지훈련 캠프를 오키나와에 차리면서이다. 2006년 총 280건의 관련 기사 중 <스포츠> 부문으로 「통합분류」되는 기사가 총 66건(23.5%)이라면, 2007년에는 총 545건의 관련 기사 중 333건(61.1%)이 이에 해당하며, 야구 대표팀 전지훈련이 있던 11월에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그림 9>는 2007년 오키나와 관련 보도 경향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9> ‘오키나와’ 관련 기사의 워드 클라우드(2007)

<그림 9>는 오키나와 관련 보도 중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한 것으로, 앞서 <그림 6> 혹은 <그림 7>과 달리 ‘대표팀’을 비롯한 야구 관련 키워드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당시 야구대표팀 외야수로 선발됐다가 오키나와에 이어 대만에서의 전지 훈련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대표팀에서 최종 탈락한 ‘이병규’를 비롯하여, ‘대만’, ‘전지 훈련’, ‘김 감독(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인 김경문을 가리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에 반해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 및 <국제> 부문으로 「통합분류」된 기사 건수는 2006년에 비하여 2007년에 감소하였는데, 그중 미군기지를 단순 언급한 기사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오키나와’를 언급한 보도 중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를 언급한 기사(2006-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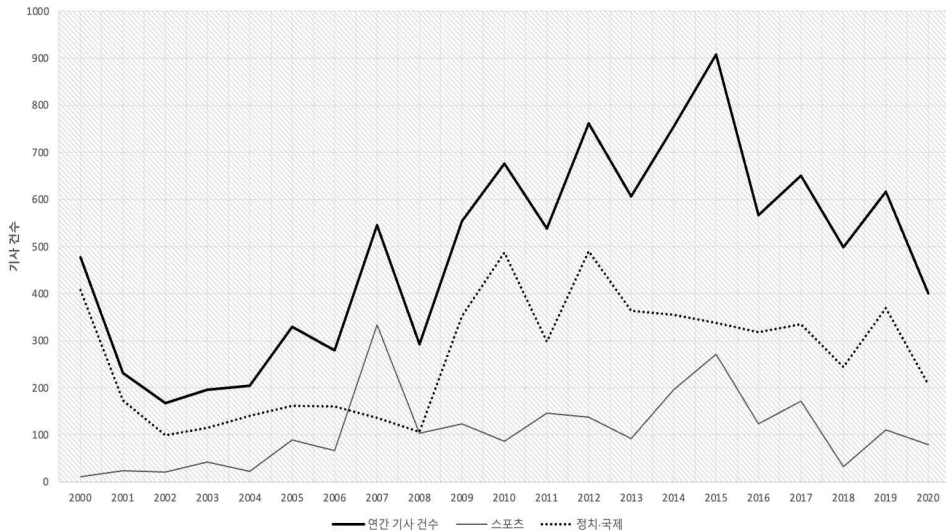
그리고 2008년, 오키나와 관련 보도는 다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통합분류」 시 전체 292건의 보도 중, <정치> 및 <국제> 부문으로 분류된 기사는 중복으로 카운트된 16건을 포함하여 총 10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 순으로 <스포츠>(103), <문화>(78), <사회>(1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앞서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기사 검색 기간의 보도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기사는 총 2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오키나와와 요코스카(横須賀)에서의 주일미군의 범죄와 관련한 보도가 13건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한다.

3.2.4 2009년 이후 : 경계 지점,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단순 언급한 기사를 포함한 관련 국내 보도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256여 건의 기사량을 유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평균 627여 건 정도의 기사량을 보인다. 이는 그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여기에는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 및 <국제> 관련 기사와 더불어 <스포츠> 관련 기사가 전체 기사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가 한국 프로야구팀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96년 즈음³⁸⁾이며, 야구와 연계하여 오키나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게 된 계기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전지훈련지로 오키나와를 선택하고 나서이다.

2009년은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해이자, 1955년 이후로 한 차례 - 1993년 8월부터 1994년 4월까지의 호소카와(細川) 정권 -를 제외하고 반세기 이상 정권을 독식한 자민당이 패배한 해이다. 요컨대 기존의 미·일 동맹 관계를 중시하며 주일미군 문제에서도 크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던 자민당과 달리 하토야마(鳩山由紀夫)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대등한 미일 동맹’을 목표로 미·일지위협정 개정 및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다. 예를 들어, 하토야마 내각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현 내 이전을 추진해온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외 이전을 주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본토 내 반대파와 갈등을 빚음으로써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 미·일 양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 8월에는, 같은 해 6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후텐마 기지의 한국 내 유치를 제안했다는 일본의 시사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의 보도 내용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파문이 인 바 있다.

38) 「[오키나와 리포트] 오키나와는 언제부터 ‘전환 천국’이 됐을까」 『스포티비뉴스』 2016.2.13. 출처 :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77&aid=0000026770>, (검색일:202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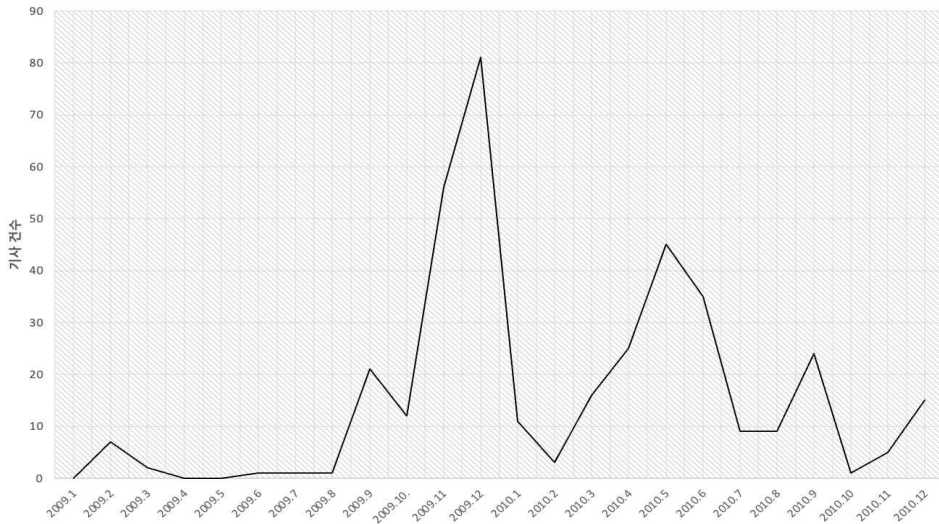


<그림 11> 연간 전체 기사 건수 및 스포츠, 정치·국제 부문 기사 건수(2000~2020)

2009년과 2010년의 ‘오키나와’를 언급한 554건, 676건의 보도 중, <정치> 및 <국제> 부문 기사는 각각 322(중복 기사 30건 제외), 409(중복 기사 78건 제외) 건으로, 이중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기사에 대한 월별 분포도는 <그림 12>와 같다. 대부분의 관련 기사가 하토야마 내각이 유지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이후, 오키나와 문제의 상징이 되어온 ‘후텐마 기지’가 기사 표제어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도 이 시기이다.

또한 2010년은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로, 오키나와는 그 경계 지점으로서 자주 회자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센카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가까운 오키나와 제도 내 미야코(宮古)섬 서쪽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미·일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하며 “동북아의 핵심 우방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⁹⁾ 이 시기는 한국 또한 천안함 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각각 북한과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때로, 미국과의 관계가 여느 때보다 중시되던 시점이다.

39) 「中·日 ‘센카쿠열도 분쟁’ 새국면/ 미국의 달라진 자세」 『한국일보』 2010.9.24. 출처 :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 2021. 6.15)



<그림 12>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기사의 월별 분포도(2009~2010)

2015년에 다른 해에 비해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앞선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 관련 기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당시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삼성을 비롯한 넥센, LG, 한화 등 6개 구단이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설치하고 전지훈련에 임했다. 이에 스포츠 부문으로 분류된 총 271건의 기사 중 176건, 요컨대 64.9%에 이르는 기사가 전체 구단의 「2015년 스프링캠프」 일정이 마감되는 3월 5일 이전에 보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기사는 하토야마와 간 나오토(菅直人)가 각각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후쿠시마(福島) 원전 문제로 2010년 6월, 2011년 8월에 총리직에서 사퇴한 이후, 2012년부터 다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15년의 ‘오키나와’ 관련 전체 기사 건수가 2009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기사 건수의 비율은 두 배 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오키나와’를 언급한 연도별 기사 건수(2008~2020)

년도	정치·국제 부문 ‘오키나와’ 관련 기사					‘오키나와’ 관련 전체 기사 건수 (F)	비율 C/E(%)	비율 E/F(%)
	‘오키나와’를 단순 언급한 기사 건수(A)	미군 기지 언급 기사 건수(B)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기사 건수(C)	중복 기사 건수 (D)	합계 (E)			
2008	53	16	21	16	106	292	19.8%	36.3%
2009	64	76	182	30	352	554	51.7%	63.5%
}								
2015	176	52	52	58	338	908	15.4%	37.2%
2016	203	61	53	1	318	566	16.7%	56.2%
2017	127	140	63	5	335	650	18.8%	51.5%
2018	147	42	50	5	244	499	20.5%	48.9%
2019	261	81	24	3	369	616	6.5%	59.9%
2020	149	41	17	0	207	401	8.2%	51.6%

출처 : 빅카인즈 데이터를 재구성함

2009년은 후텐마 기지 문제의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하토야마가 내각을 구성한 해로, 오키나와에서 G8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2000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과 같이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 관심이 많이 증가한 시기이다. 하지만 하토야마가 공약과 달리 후텐마 기지 문제의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실각하자 후텐마 기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 문제는 일본 정치 공간에서 부유하게 된다. 이후 미일 동맹 강화를 비롯하여 일명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아베가 장기 집권함으로써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키나와’는 <정치> 및 <국제> 부문의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오키나와 문제는 비가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오키나와’를 언급한 <정치> 및 <국제> 부문 기사에서는 오키나와를 주로 중·일 간 영토분쟁 혹은 미·중 간 권력 다툼의 경계 지역,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범위에 있는 지역 등으로 다루게 됐다.

4. 맺음말

일본에서는 1995년의 소녀폭행사건 이후 불거진 후텐마 기지의 이설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대중에게서도 보이는데, 2017년 오키나와 주민과 일본 본토인을 대상으로 NHK 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관련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말에, 오키나와에서는 여론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63%가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에 반하여, 일본 본토에서는 「반대」(37%)하는 사람보다 「찬성」(47%)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58% 이상이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의 본토 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⁴⁰⁾

이러한 온도 차는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매스컴 보도 경향에서도 드러난다. 구시켄 가츠야(具志堅勝也)는 소녀폭행사건 이후 계속해서 관련 문제에 대해 다층적인 보도를 해온 오키나와 매스컴과 달리 그동안 침묵하던 본토 매스컴이 2009년에 후텐마 기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을 잡은 하토야마가 결국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급히 사임한 이래, 일제히 아베 정권의 주장에 발맞추어 “헤노코에서의 신기지 건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⁴¹⁾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에 대한 국내 인식 정도를 조망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검토했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종합일간지 중 구독자 수가 상위인 총 6개 언론매체 중 전 기간에 걸쳐 기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신문 데이터를 활용해 ‘오키나와’와 관련한 기사를 바탕으로 관계도 분석, 키워드 분석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오키나와와 관련한 뉴스 콘텐츠의 대부분이 <정치> 및 <국제> 부문과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보도되었음을 발견했다. 또한 오키나와를 미·일 관계 및 한·일 관계, 혹은 중·일 관계 속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 예로 전체 검색 기간을 아우르는 관계도 분석에서 오키나와와 관련한 주요 핵심 키워드는 ‘일본’, ‘미국’, ‘오키나와현’, ‘도쿄’, ‘중국’, ‘한반도’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 문제가 일본 본토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이후 오키나와 문제의 정점으로 떠오른 후텐마 기지 문제가 중앙정부

40) 『沖縄米軍基地をめぐる意識 沖縄と全国-2017年4月「復帰45年の沖縄」調査』, 출처 :NHK放送文化研究所 홈페이지 https://www.nhk.or.jp/bunken/research/yonon/20170801_7.html (검색일: 2021.2.10)

41) 具志堅勝也(2017)「米軍基地問題とマスコミ報道-60 年安保時から今日まで「基地報道の変遷について」『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No.91,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pp.3-13

대 지방정부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관심은 해당 시기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그 예로, 2009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후 하토야마에 의해 후텐마 기지 문제가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됨으로써, 오키나와 문제는 전국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루어졌다(42), 이후 아베를 중심으로 한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한 이후 그 관심은 다시 사그라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언론의 오키나와에 대한 보도 경향은 일본 본토의 그것과 닮아있다.

물론 국내 언론이 국제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 일본 본토 미디어의 주요 쟁점을 기사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보도 경향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번 매클랙(Gavan McCormack)의 지적처럼 ‘오키나와 내 미군기가 한반도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오키나와의 비무장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⁴³⁾에서 우리는 미군기지 문제로서의 오키나와 문제에 항상 예의주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군기지의 지역 내 장기 주둔에 대한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이유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답습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한국전쟁 때 본격적으로 군사기지화 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구상 중인 한반도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저변에 이념을 아우르는 평화에 대한 집합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과 함께 미국 군국주의의 열망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오키나와 사회를 아우르며 지속하고 있는 반기지·평화 운동의 동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가 군사적·정치적으로 오키나와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이 일본 본토의 그것과 닮아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는 오키나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도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과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을 명확히 계량화하여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향후 연구 범위를 세분화하고, 관련 데이터

42) 山腰修三, “沖縄の「苦難」の歴史をめぐるテレビニュースの言説分析: 沖縄「慰霊の日」報道を事例として”, 『慶応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紀要』No.6(慶応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2012), pp.149-160

43) “[개번 매클랙 칼럼](11) ‘한반도 평화’ 염원하는 오키나와”, 『경향신문』2008.11.10 출처: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s://www.khan.co.kr/article/200811101823345>(검색일: 2021.6.20)

를 추가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오키나와 문제’에 한정해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와 관련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이 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의 분석기법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인식 조사와 같은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의 주장에 근거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뉴스 매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분석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태 · 박창신 · 최홍규(2014)『빅데이터로서 뉴스콘텐츠 활용방안 연구』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정오 · 권충훈(2020)『코로나19 이전(2019)과 이후(2020)에 항공사와 직원 관련 언론사 뉴스 기사 비교분석』『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25(7),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김종성(2011)「조선과 오키나와, 순망치한(唇亡齒寒) 관계」『민족21』
- 나경식 · 이지수(2018)「신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국내 정보화의 경향과 도서관의 역할」『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Vol.18 No.9, 한국콘텐츠학회
- 나리타 치히로(2019)「오키나와 귀속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 정부의 동향-1940~50년대를 중심으로」『인문논총』제76권 제2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남호엽(2011)「[학술 에세이] 오키나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사회과교육」『사회과교육』50(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박봉규(2018)「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23(3), 한국동북아학회
- 박수정 · 김영태(2018)「자유학기제 관련 신문 기사 분석 : 정책 입장과 주요어를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8권 제1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박윤주(2013)「미디어 모노컬처와 오리엔탈리즘: 한국 언론의 라틴아메리카 보도 행태 연구」『중남미연구』제32권 제2호, 중남미연구소
- 신주백(2007)「한국근현대사와 오키나와-상흔과 기억의 연속과 단절」『한국민족운동사연구』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윤덕민(1992)「美日 오키나와 返還協商과 韓國外交-오키나와返還에서 보는 韓國의 安保를 둘러싼 韓美日의 政策研究」『국제정치논총』31, 한국국제정치학회
- 은창일(2000)「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한국전쟁연구회(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 이병중(2012)「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홍보학연구』제16권 제3호, 한국PR학회
- 이재호(2000)『대중매체와 사회』서울: 양지
- 정호윤 · 김호(2021)「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포르투갈 관련 국내 언론 보도 텍스트 연구:2017-2020년 기사를 중심으로」『EU學研究』제26권 제1호, 한국EU학회
- 정호윤(2021)「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포털 사이트의 라틴아메리카 관련 뉴스 보도 행태 연구: 브라질과 멕시코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포르투갈-브라질 연구』제18권 제1호,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 최중홍 · 이호규(2020)「정치적 갈등 이슈에 대한 신문 사실 프레임 및 국면 분석: 2019년 ‘조국 사태’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27(2), 사회과학연구원

- 한용진·최정희(2011)「신문기사에 나타난 자녀교육 인식 변천-1920년대~199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한국교육학연구』제17권 제3호, 안암교육학회
- 홍종필(1999)「한국과 ‘오кина와(沖繩)’와의 관계에 대하여」『역사와실학』10·11, 역사실학회
- 홍진원(2015)「제주, 오кина와, 밀양 그리고 후쿠시마」『황해문화』86, 새얼문화재단
- 新崎盛暉(2005)『沖繩現代史』東京: 岩波書店
- 川瀬光義(2011)「米軍基地維持財政支出膨張の構造」『立命館経済学』第59巻第6号, 立命館大学経済学会
- 具志堅勝也(2017)「米軍基地問題とマスコミ報道-60年安保時から今日まで『基地報道の変遷について』」『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No.91,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 高橋順子(2003)「『復帰』前後における『沖繩問題』言説の変容過程-教育研究全国集会の事例から」『年報社會學論集』2003巻16号, 関東社会学会
- 竹内真澄(2001)「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沖繩>をどう報道したか?(1)-1995~2000年」『桃山学院 大学総合研究所紀要』26(3), 桃山学院大学総合研究所
- 中内康夫(2008)「包括的な見直しを求める在日米軍駐留経費問題-在日米軍駐留経費負担特別協定」『立法と調査』No.278
- ましこひてゝ(1997)『イテゝオロキ とての日本』東京: 三元社
- 山腰修三(2012)「沖繩の『苦難の歴史』をめぐるテレビニュースの言説分析: 沖繩『慰霊の日』報道を事例として」『慶応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紀要』No.6, 慶応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참고 홈페이지>

-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s://www.khan.co.kr>
-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홈페이지 <https://www.asahi.com>
- 일본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 <https://www.mod.go.jp>
- 오кина와현청 홈페이지 <https://www.pref.okinawa.lg.jp>
-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s://news.joins.com>
-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
- NHK放送文化研究所 홈페이지 <https://www.nhk.or.jp/bunken/research>
- RISS 홈페이지 <http://www.riss.kr>
- 고토뱅크 홈페이지 <https://kotobank.jp/>

논문투고일 : 2021년 09월 15일
 심사개시일 : 2021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21년 11월 09일
 2차 수정일 :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0일

< 要 旨 >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

- 1994년~2020년 빅카인즈(BIGkinds)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미영

한국과 오키나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현재에는 양자 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체제 아래 미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서의 미군기지의 군사적 기능은 더욱 강화됐다.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국내 인식 정도를 조망하기 위해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을 빅데이터(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검토했다. 그 결과 오키나와와 관련한 뉴스 콘텐츠의 대부분이 <정치> 및 <국제>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오키나와를 미·일 관계 및 한·일 관계, 혹은 중·일 관계 속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키나와 문제가 일본 본토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이후 오키나와 문제의 정점으로 떠오른 후텐마(普天間) 기지 문제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관심은 해당 시기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국내 언론의 오키나와에 대한 보도 경향은 일본 본토의 그것과 닮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가 군사적·정치적으로 오키나와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이 일본 본토의 그것과 닮아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The trend of Korean News Reports related to Okinawa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Bigkinds database 1994 to 2020 -

Kim, Mi-Young

Korea and Okinawa have long influenced each other directly and indirectly, and now both have a common point that they have US military bases under the US East Asian defense system. The military function of US bases in these areas was further strengthened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In this study, in order to see the degree of domestic awareness of Okinawa (Okinawa problem), the trend of domestic media coverage related to it was reviewed using big dat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news content related to Okinawa was related to the <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tors, and most of the cases were referring to Okinawa in the U.S.-Japan relationship, Korea-Japan relations, or China-Japan relationship. And it was in 1995 that the Okinawa issue began to be reported in earnest through the Japanese mainland media, and since then, the issue of the Futenma base, which emerged as the pinnacle of the Okinawa issue, turned into a confront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Japanese media's interest in this matter was Depending on the political judgment of the ruling party, the deviation was severe. The Korean media's tendency to report on Okinawa resembles that of mainland Japan. In this study, despite the Korean Peninsula's close military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Okinawa, the need for attention to the Okinawa issue was emphasized by pointing out that the trend of Korean News Reports related to Okinawa resembles that of mainland Japan. This study tried to emphasize the need for interest in the Okinawa issue by pointing out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a close military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Okinawa, the domestic media coverage of Okinawa is similar to that of mainland Japan.